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7주일

2025년 2월 23일 / 제678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 심 단 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유연호 제1독서 이주일 제2독서 황희숙 / 입당 46 봉헌 213, 516 성체 187, 특송 파견 458  
Narrator Hawlan Ng 1<sup>st</sup> Reader Andy Lee 2<sup>nd</sup> Reader Aiden Jung

입 당 송 | 시편 13(12),6 참조

주님,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제1독서 | 1사무 26,27-9.12-13.22-23

화 답 송 | 시편 103(102),1-2.3-4.8과 10.12-13(◎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기록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2독서 | 1코린 15,45-49

복음환호송 |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 음 | 루카 6,27-38

영성체송 | 시편 9,2-3

주님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 하나이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2월 23일	주일학교 YES	Fr. Ben
3월 02일	주일학교 YES	Fr. Augustine
3월 09일	주일학교 YES	Fr. Peter
3월 16일	주일학교 YES	Fr. Jim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손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김정희 데레사, 정종락 필립보, 배예흠 요한사도, 배비임 알비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우리 인간의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심지어 쌍둥이인 분들도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인간이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좋은 일들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가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일반화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지성만으로 선불리 판단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연 갈등으로 생긴 갈라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성찰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갈라짐의 상황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더라도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내 삶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반목 중인 그 사람이나 관련된 일들이 계속 떠올라서 괴로움에 빠질테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한 갈라짐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손해가 됩니다. 분열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813-822항 참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루카6,27-28)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복음 환호송에 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말이지요.(루카 6,36; 요한 13,34 참조)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1사무 26,23 참조)

갈등과 다툼 그리고 반목이 계속되는 이 시대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갈라짐이 아닌 일치를 향해 나아가며 하늘에 속한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좋겠습니다.(1코린 15,49 참조) 그렇게 우리 모두, 본기도의 내용처럼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소중한 한 주간, 신앙의 일상을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김민 요한 신부 |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p><b>김수정 REALTOR®</b>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동증조절, 체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b>STEVE G KIM DDS</b> Family &amp;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b>STAR태권도</b> STAR TAEKWONDO 跆拳道 하성근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b>N² ART &amp; DESIGN</b>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b>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b> <b>탐탁 부동산</b>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b>미술교실</b> 전문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 9. “신앙의 유산”과 그 해석-2

글/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 하나는 똑같은 것을 들어도 각자가 이해하는 것이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의 폭이 다르기도 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가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전달할 사명을 지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계시 진리를 어느 정도 공통된 담화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시대의 변화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로 인한 다양성 안에서 유일한 하느님 말씀의 참 뜻을 제대로 해석하고 전달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기록된 하느님 말씀인 성경과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인 성전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계시현장, 10항)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도권은 “로마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교황)와 일치하는 주교들에게 맡겨져”(가톨릭 교회 교리서, 85항) 있는 것이며, 성경과 성전은 교도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처럼 우리가 믿을 교리로 고백하는 것들, “교회가 계시된 진리를 확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온 교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방식으로 제시하여, 이를 부정할 경우 이단으로 배척되고 파문을 받게 되는”(오늘의 신학: 전망, 원칙, 기준, 29항) 진술들을 우리는 교의(敎義, dogma)라고 합니다. 교회는

공의회라는 주교들의 회의를 소집해 이단에 맞서 정통 신앙이 무엇인지를 밝혀 왔으며, 이러한 역사를 통해 단일한 신앙의 진리를 지키고 이를 교의로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70년)는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스승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적 최고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보편 교회가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그는 복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하느님의 도움에 힘입어 무류성(無謬性, Infallibilitas)을 지닌다”(제1차 바티칸 공의회, 영원하신 목자, 덴칭거 3074항)고 가르칩니다. 곧 교황이, 또는 교황과 함께 주교들이 교도권을 행사하여 신앙과 도덕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온 교회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으로 가르칠 때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황도, 주교들도 인간이기에 인간의 결정으로 선포되는 모든 가르침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의문은 개신교는 물론이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도권은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봉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권위에 의한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해도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가톨릭 교회 교리서, 92항), 교도권은 이와 같은 신자 전체의 믿음 안에서 신자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올바르게 진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b>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b>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b>HANLEES AUTO GROUP</b>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b>SUE CHO</b> CELL: 530-220-2848</p>	<p><b>PARK CHIROPRACTIC</b>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b>HARMONY ACUPUNCTURE</b>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amp;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b>Elizabeth Jihyun Kim, DDS, MS</b>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b>AIDEN KIM</b> 에이든 킴 (니콜라오)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p>	<p>DRE # 01983236  <b>AIDEN KIM</b> 에이든 킴 (니콜라오)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p>
<p><b>West Dublin PETSMART</b> <b>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b>  <b>VETERINARY SERVICES</b>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b>James Golf Class</b>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 <b>하나비 스시</b> <b>SUSHI HANABI</b> 계상진 빈첸시오 조성아 데 레 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p>	



“환영합니다.”

저희 공동체 제4대  
주임신부님으로 부임하신  
오대석 바오로 신부님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부임미사: 2025년 2월 23일(주일), 오전 9시 30분

2-3월 주요 전례 일정

- 2월 23일(주일): 오대석 바오로 신부님 부임 미사
- 3월 5일(수): 재의 수요일 미사(미사 시간 추후 공지)
- 3월 8일(토): 북가주 6개 성당 성가 나눔
- 3월 9일(주일): 사순 제1주일

성지가지 수거 안내

- 재의 수요일(3월 5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위해 지난해 가져가신 성지가지를 수거합니다.
- 기간·장소: 3월 2일(주일)까지·사무실

성 가브리엘 복사단 및 부모 모임

- 일시: 2월 23일(주일), 오후 12시 - 1시
- 장소: Room A, B

제2회 북가주 6개 성당 성가 나눔

- 일시: 3월 8일(토), 오전 11시
- 장소: 오클랜드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성당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 성가를 사랑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문의: 홍사현 요셉(510-676-6716)

재속 프란치스코회 3월 월례모임

- 일시: 3월 9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Room B
- 문의: 유인숙 요한나

미사 예물 봉헌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2월 23일(주일)부터 수표를 이용해 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경우 오대석 신부님 성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Check Payable to **DAE SEUK OH**

2024년 봉헌금 증명서 발급 안내

- Tax 보고용 봉헌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사무데스크에서 신청서 작성 또는 이메일 (office@tvkcc.org) 신청 시 등록번호, 발급대상 영문이름, 전년도 주일헌금(본인 추정 금액) 기재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2146.07	-	\$530	\$20	\$10	\$2706.07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박주암(2), 배예자(2), 석근수(1), 홍석제(2)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홍석제(2)

Bishop's Appeal

홍석제(2)

LA 산불복구 지원금 TVCS

간식봉헌 김정주 안드레아·김שמ미 세라피나 / 장진환 라파엘·박경화 안젤라

2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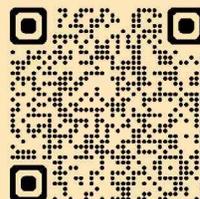
사제성소와 수도 성소

For vocations to the priesthood and religious life

교회 공동체가, 사제 생활과 수도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받는 젊은이들의 바람과 의문을 환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hat the ecclesial community might welcome the desires and doubts of those young people who feel a call to serve Christ's mission in the priesthood and religious life.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큐알코드 스캔하고

온라인 봉헌 페이지로 바로 가기

Scan To Online Donate

